Vietnam(大越) 황자 '李龍祥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3)

- 화산 이씨의 혈맥과 동향에 대한 추적을 중심으로 -

박순교*

차 례

Ⅰ. 머리말
Ⅱ. 화산 이씨의 혈맥과 특징
  1. 화산 이씨 족보의 편찬 과정
  2. 화산 이씨 성원과 그 숫자
Ⅲ. 1子 幹의 계통과 흐름
Ⅳ. 2子 一淸의 계통과 흐름
Ⅴ. 惟顔과 垕가 남긴 기록들
  1. 惟顔의 「遺事」, 垕의 「족보 序」
  2. 垕의 「開丹先塋記」와 화산 이씨의 권역
Ⅵ. 맺음말

【국문초록】

본문은, 고려 고종 무렵 大越을 떠나 고려로 移居한 李龍祥(Lý Long Tường')의 혈맥을 추적한 논문이다. 李龍祥에 관한 연구 자체도 영성한 현실이지만, 그의 혈맥의 흐름, 생활 권역, 주요 행적과 관력 등의 검토나 비정은 전무했다. 까닭에 본문은 그간 전혀

* 육군 삼사관학교 강의교수

주목되지 않은 사안을 다룬 개척 연구이다. 이는 단지 화산이씨 일가의 부침, 명멸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간 역사적 연원의 추적이며, 양국의 유대를 심화시킬 시의성에도 부합될 유의미한 작업이다.

먼저 본문은 李龍祥 혈맥을 추적할 주요 자료인, 『화산 李氏 족보』 내용과 편찬 과정, 족보의 갈래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산이씨 족보』는, 1)1子 계열(초보~5수보), 2子 계열(垕의 별도 족보)로 각기 분리되어 보존, 전승되었고, 2) 6修譜(1987년)에 이르러 비로소 大同譜(全)의 형태로 합쳐졌으며, 3) 몇몇 인물들의 경우 생몰년, 官歷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족보 편찬 시기에 있어서는 2자 계열, 垕(李龍祥의 17세손)가 작성한 족보서(1707년)가 1子 계열 枰이 작성한 초보서(1706년)보다 표기상으론 1년 늦지만, 실제 가장 오랜 기록이었다. 이로 본다면, 초보서(1706)~중수보(1777)의 사이에서 大越의 정보를 바탕으로 李龍祥(Lý Long Tường') 移居 설화가 단계별로 창작되었다는 일본 학계의 주장은 전체 족보의 얼개를 조감하지 못한 채, 1子 계열의 족보에만 천착한 결과 빚어진 순전한 오류와 착간인 셈이다.

李龍祥 1子 계열, 2子 계열의 혈맥, 관력, 생몰연대, 분묘 및 묘역 역시 전혀 고찰되지 않았는데, 필자는 족보 기록의 대조와 현지답사의 반복을 거쳐 분묘의 분포 및 묘역 등을 사상 최초로 구명, 본문에 게재했다. 특히 본문은 「유사」, 「개단선영기」, 「충효당기」 등에 대한 최초의 본격 검토, 각종 지리서 등의 비교・검토를 토대로, 2자 계열의 동선을 추적, 안동부(현 봉화) 내 활동 권역과 묘역(안동파의 선영), 밀양의 화산이씨 선영(무연리, 청운, 운정에 이르는 밀양파의 선영)의 위치 역시 推察・정리하였다. 단언컨대, 이상에서 파악한 내용은 空前의 것으로, 향후 화산이씨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리용상, 화산군, 베트남, 대월, Lý Long Tường, 장발, 화산 이씨

Ⅰ. 머리말.

한국・베트남 선린의 전거로 李龍祥(Lý Long Tường')이 인구에 회자되어 왔다. 李龍祥은 고려 고종의 시기 대월에서 머나먼 異域 고려로 이거했다. 그의 지난하고 신산했을 대장정은 아득하고 웅혼한 신화를 대하듯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일면 몽환적이고 야릇한 신비감마저 자아낸다. 가혹한 天命일지 아니면 지독한 비련이라 불러야 할 지 모를, 그의 행적에 대한 검토는 오래된 전설을 더듬듯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이루어졌다.[1] 또 그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2] 한데 한국과 베트남이 李龍祥의 행적을 대체로 취신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선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 의혹의 세부 전거는 국내에 이미 소개되었고, 적절한 반박 역시 제시된 바 있다.[3] 나아가 최근에는 李龍祥의 생몰년, 출자,

---

1) 이용상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는 박순교,『花山郡 李龍祥』, 圖書出版 생각나눔(기획실크), 2012. 5, pp. 266~267. 및 박순교,「花山君 '李龍祥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Ⅰ)」,『택민국학연구논총』15, 2015. pp.299~303에서 총체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2) 윤대영,「金永鍵의 베트남 연구 動因과 그 성격」,『동남아시아연구』19권 3호, 2009, 57~100. 강은해,「한국 귀화 베트남 왕자의 역사와 전설」,『동북아 문화연구』26, 2011. 박순교,『花山郡 李龍祥』, 圖書出版 생각나눔(기획실크), 2012. 5, 박순교,「花山君 '李龍祥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Ⅰ)」,『택민국학연구논총』15, 2015. Do Phung Thuy,『초국가적 다문화주의의 가능성 모색을 위한 월남 왕자 Lý Long Tường' 연구』, 계명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박순교, Vietnam(大越) 皇子 '李龍祥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2)－'고려 移居 창작설' 검토를 중심으로－,『동아인문학』40, 2017.

3) 박순교,「花山君 '李龍祥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Ⅰ)」,『택민국학연

가계, 행적, 序次 등을 포함, 본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까지 이루어졌다.[4)]

그럼에도 李龍祥 후손(혈맥)의 동향, 생활 권역, 유적 등의 검토가 도외시되었다. 과거의 李龍祥을 언급하였을 뿐, 현재에 이르는 혈맥의 흐름이 전혀 고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李龍祥 연구에 있어 뭔가 심각한 허점과 시각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지금까지 전무했던, 李龍祥의 고려 移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혈맥의 계승 과정, 생활 권역, 주요 행적 등을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추적할 필요성이 새삼 제기된다. 또한 李龍祥 혈맥에 관한 내용의 주된 전거가 족보인데, 화산이씨 족보의 편찬과정, 족보의 갈래와 기록의 진위 비정, 지파의 생성과 분화, 분묘와 묘역의 조사 및 현지답사를 통한 생활 권역의 추적 등 면밀한 검토 역시 요망된다.

이에 본고는 이상의 주요 논점에 입각, 李龍祥의 1子, 2子 계열을 망라한 과거사의 전반적 복원과 검토를 축차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이는 영성한 고찰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왕의 李龍祥 연구를 극복할 또 하나의 주요 토대가 될 것이다.

Ⅱ. 화산 이씨의 혈맥과 특징

1. 화산 이씨 족보의 편찬 과정

화산이씨의 흐름을 파악할 正史는 많지 않다. 옹진군 읍지 등 지방 관찬 기록을 빼고 나면, 주요 전거는 화산이씨 족보라 할 수

구논총』15, 2015.

4) 박순교, Vietnam(大越) 皇子 '李龍祥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2)－'고려 移居 창작설'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40, 2017).

있다. 序를 통해 보건대, 화산이씨 족보는 현재까지 대략 7차례에 걸쳐 개수되었고, 그 대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5)]

<표 1> 화산이씨 족보의 간행과 序

花山李氏 世譜	作成者	年代	經過
草譜舊序	後孫 工曹佐郎 李枰	1706(숙종 32년)8월 3일	祖系가 散失되어 作成
重修舊序	後孫 李義之	1777(정조 원년) 7월	草譜로부터 71년
3修譜 序	唐城人 洗馬 洪直弼	1837(헌종 3년) 4월	重修로부터 60년
4修譜 序	豊壤 趙康夏	1873(고종 10년) 9월上澣	3修로부터 36년
5修譜 序	後孫 李秉華	1917(大正 丁巳) 5월上澣	4修로부터 44년
6修譜 序	後孫 李福永 외4인	1987년 6월	5修로부터 70년
7修譜 序	後孫 李福永 외6인	2004년 9월 1일	6修로부터 17년

花山李氏 문중이 작성한 족보 중 초보~4수보는 현재 망실되었다. 까닭에 현존 최고의 화산이씨 족보는 5修譜인 셈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6층에는 家藏 1冊, 本譜 5卷 5冊, 共 6冊으로 구성된 화산이씨 5修譜가 소장되어 있다. 四周單邊 半郭 26.4 x 17.6cm형태의 5修譜는 李秉華가 1917(大正 丁巳) 5월 작성하였기에 일명 정사본이라 불린다. 그러나 실제 발행은 1921년 海州郡 내의 蓉南石版所에서 新鉛活字本으로 이뤄졌고, 編者는 李承哉로 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가장(1권), 본보(5권), 도합 全6권이, 청구기호 한古朝58-가33-44라는 동일 번호로 일괄 부여된 채 보존, 처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반의 열람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그 대신 동일한 내용의 2000년, 2002년의 복제본이 각각 1부씩 존재한다. 이들 복제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하다는 검수 직인이 내지의 군데군데 찍혀 있다. 각 권에 따른 청구기호 역시 달리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복제본에 대한 열람은 허용되어 있다.

『花山李氏 가전실록』(권1)의 경우, 청구기호 한古朝58 가33-44

5) 박순교, 「花山君 '李龍祥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Ⅰ)」, 『택민국학연구논총』15, 2015

-1=複(2000년), 청구기호 한 古朝58 가33-44-1=複2(2002년)[6]으로 되어 있고, 이들 2종의 복제본이 열람 가능하다. 이 가전실록에는 花山君 本傳, 海隱先生 事實, 川隱先生 本傳, 表節追配事上言, 川隱先生 事實序, 川隱先生遺墟東鰲泉孝子碑跋, 川隱先生追配達禮祠禮成祝文 등의 가장이 순서대로 실려 있다. 다만 7수판에서 찾아볼 수 있는 受降門紀績碑文은 실려 있지 않다.

李承哉 編『花山李氏 世譜』(권1~5)(청구기호 한古朝58 가33-44)[7]은 전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시 청구기호 한古朝58 가33-44-2=複을 필두로 한古朝58 가33-44-6=複에 이르는 2000년의 복제본, 청구기호 한古朝58 가33-44-2=複2을 필두로 한古朝58 가33-44-6=複2에 이르는 2002년의 복제본[8] 등 각기 2종의 복제본 5권이 별도로 있으며, 이들 복제본에 대한 열람만이 현재 가능하다. 1권에는 5修譜서, 4수보서, 3수보서, 중수구서, 세보 범례, 安南 世系(베트남 李朝의 帝位 系譜), 幹(Lý Long Tường'의 1자)의 비속 계보가 순서대로 실려 있다. 내지 윗면에 천자문의 字順대로 표기한 天地玄黃 등이 페이지수를 드러내고 있다. 2권에는 승지공파 再疊, 3권에는 승지공파 再疊, 4권에는 승지공 5세손 佐郎公派의 비속, 5권에는 승지공 5세손 參判公 諱渭源派의 세보, 말미에는 李永祚의 구보발을 필두로 李陽復에 이르는, 다섯 편의 구보발이 실려 있다. 요컨

6) 內紙에는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轉本 所藏印이 찍혀 있고 內題로는 花山李氏家藏 卷一 및 花山君本傳이 기재되어 있다.

7) 內紙에는 朝鮮總督府 圖書館 所藏印이 찍혀 있고 圖書登錄番號 昭和 4년 5월 10일 字가 附記되어 있다. 권두에 五修譜序가 실려 있고 그 연도가 大正 丁巳 仲夏上澣 不肖孫 秉華謹序로 되어 있어 그 작성 연대는 1917년 5월 상순이라 짐작된다. 이로써 그 이전 4번의 撰修가 있었으며, 당해 世譜가 5수판임이 드러난다. 특히 서문의 말미에 부기된 간지를 통해 1706, 1777, 1837, 1873년 4 차례 족보 간행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6修譜는 1987년, 가장 최신판인 7修譜가 2004년 발행된 바 있다.

8) 內紙에는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轉本 所藏印이 찍혀 있고 內題로는 花山李氏家藏 卷一 및 花山君本傳이 기재되어 있다.

대 1921년 간행된 5修譜는 Lý Long Tường'의 1자 幹의 비속, 그 중에서도 승지공파가 내용의 중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9]

2. 화산 이씨 성원과 그 숫자

Vietnam 李朝의 末裔 Lý Long Tường'을 비조로 하여,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화산이씨 성원은 2015년 기준, 1237명(남자 616명, 여자 621명)으로 확인된다.[10]

<표 2> 화산이씨 전국 분포표(통계청 인구조사, 2015년 기준)

성씨, 본관	행정구역별	인구(내국인)	남자	여자
화산	전국	1,237	616	621
	서울특별시	304	167	137
	부산광역시	32	12	20
	대구광역시	43	22	21
	인천광역시	209	106	103
	광주광역시	13	6	7
	대전광역시	30	17	13
	울산광역시	18	10	8
	세종특별자치시	7	6	1
	경기도	338	166	172
	강원도	26	14	12
	충청북도	45	19	26
	충청남도	33	16	17
	전라북도	26	6	20
	전라남도	7	1	6
	경상북도	58	27	31
	경상남도	44	19	25

9) 5修譜에서는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의 비속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일청의 비속은 6수판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7수판에서 보다 완비된 형태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6수판 편찬 과정에서 대동보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10) 박순교, Vietnam(大越) 皇子 '李龍祥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2)－'고려 移居 창작설'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40, 2017, p. 274

이는 개별 조사원의 호별 방문을 토대로 작성된 2000년의 통계치인 1,775명에 비하여 500명 이상 급감한 수치이다. 2015년 통계치는 행정 전산망의 생존자들을 집계, Data Base로 구축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수치라 여겨진다.[11] 화산 이씨의 최대 거주지는 경기도(338명), 서울특별시(304명), 인천광역시(209명)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두 자리 숫자에 머문다. 북한이 김일성 유일 체제를 구축하여 오면서, 김씨 외 여타의 姓氏 및 本貫을 압살해 온 것을 고려할 때 설령 통일이 된다 한들, 화산 이씨 성원의 숫자는 현재에 비해 크게 증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화산이씨는 한국의 절대 소수의 稀姓임이 분명하다.[12] 화산이씨 족보의 기록대로라면, 화산이씨의 비조로 여겨지는 Lý Long Tường'은 1226년경 고려에 정착했다. 그로부터 800년에 육박하는 장구한 세월에도 이들 일문의 성원이 이토록 소수에 머물고 있는 점은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화산이씨의 성원은 한국 사회와 현실에 그야말로 안착하지 못하였고,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다고 보인다.[13]

Lý Long Tường'은 고려에 온 이후 幹과 一淸 두 아들을 두었다. Lý Long Tường'의 출생 연도를 고려할 때,[14] 1226년 경, 그

---

11) 박순교, Vietnam(大越) 皇子 '李龍祥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2)－'고려 移居 창작설' 검토를 중심으로－,『동아인문학』40, 2017), pp. 274~275.

12) 화산이씨 족보에 의하면 상계 未詳의 이유를 붙여, 부록으로 入系된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가된 성원의 진위 여부는 좀 더 치밀한 확인의 과정이 필요하다.

13) 화산이씨 종친회 이훈 부회장은 '화산 이씨 성원 중 일부가 자신의 본관이 '화산'인 줄 자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2004년 7수보 편찬 이래 누락된 성원, 2004년 7수보 편찬 당시 누락된 성원을 입계한 전체 화산이씨 대동보가 재정리될 경우 실제 화산이씨 숫자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는 현재 화산 이씨 전체 성원을 대략 2천명 내외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구체적 전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14) 용상은 용한의 동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龍祥의 출생 시기는 용한이

의 나이는 53~55세였다. 나이로 보아 Lý Long Tường'이 고려로 이거하기 이전 혼인하였을 것이 틀림없고, 대월에서 낳은 자녀들도 필시 있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현존 기록에선 편린이 찾아지지 않는다.[15]

화산이씨의 鼻祖라 할 Lý Long Tường'은 물론 Lý Long Tường'의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에서 시작하는 가계의 상당수 생몰 연대가 불명이다. Lý Long Tường'의 1자 幹의 경우 幹에서~宮, 澤에 이르기까지 6대의 생몰 연대가,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의 경우 一淸~希文에 이르는 11대의 생몰 연대가 죄다 미궁이다.

墓의 분포 지역과 失傳 여부 역시 주요 사항이다. Lý Long Tường'의 1자 간 계열의 경우, 幹, 玄亮을 제외하고 龍進, 裕, 孟雲의 묘가 실전이다. 이에는 려말·선초의 정치 상황이 작용했다고 믿어진다. 조선 개창 이후의 澤, 石峻, 周孫, 夏孫, 宗伯, 元亨 등의 묘도 죄다 실전이다. 또한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 계열의 경우 一淸~希文에 이르는 12대의 묘가 실전이다. 일단 본고에서는 남아있는 화산이씨와 관련된 제반 기록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이들 간과 일청의 혈통이 어떻게 分枝해 나갔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태어난 1173년 5월에서 영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직전인 1175년 4월 사이로 좁혀진다(박순교, Vietnam(大越) 皇子 '李龍祥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2)－'고려 移居 창작설'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40, 2017)

15) Lý Long Tường'의 배필이 고려 여자였는가, 아니면 대월에서 함께 탈출한 대월 출신 여자였는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화산이씨 족보에서도 Lý Long Tường'의 배필에 관한 언급은 전무하다.

Ⅲ. 1子 幹의 계통과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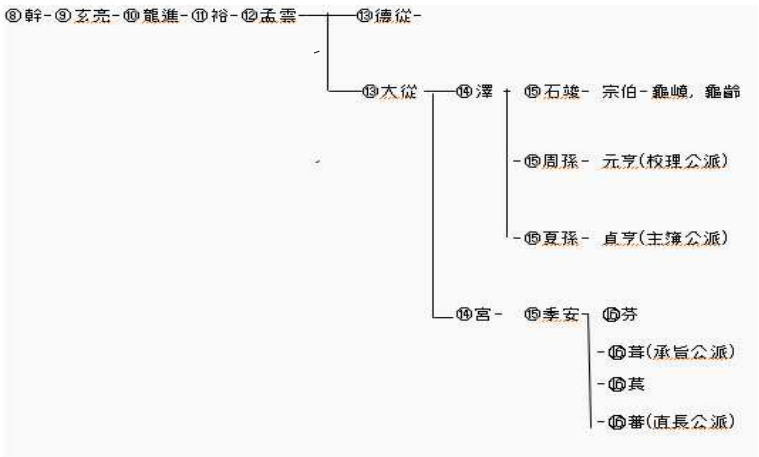
Lý Long Tường'의 1子인 幹의 생몰 연대는 불명이다. Lý Long Tường'의 출생이 1173~1175년경이었을 것임은 앞서 살폈다. 따라서 Lý Long Tường'이 고려에 왔다고 하는 1226년경,[16] Lý Long Tường'의 나이는 53~55살이었다. Lý Long Tường'의 1子인 幹이 고려에서 출생했다고 보면, 그의 출생은 1227년 이후가 된다. 의문의 여지는 없지 않으나, Lý Long Tường'의 최종 행적은 1253년 몽골 격퇴로 확인된다.[17] 이 경우 Lý Long Tường'의 나이는

16) 1224년 10월, 惠宗은 황위를 차녀 昭聖公主에게 물려주고 傳位했다. 昭聖이 卽位하여 昭皇이라 칭했다(『대월사기 전서』권4 본기4 혜종 甲申 14년 10월조). 한데 1216년 6월에 출생한 장녀 順天公主가 아닌, 1218년 9월 출생한 차녀 소성공주가 황위를 물려받은 점은 의문이다. 1216년 12월 장녀 순천 공주는 황태자로 책봉되었고("未有太子, 中宮所生公主而已." 『대월사기 전서』권4 본기4 혜종 丙子 6년 12월조) 구절을 황제권의 계승자로 순천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1224년 제위를 계승하지 못했다. 전위 당시 혜종은 스물아홉, 순천은 여덟 살, 소성은 여섯에 불과했다(『대월사기 전서』권4 본기4 혜종 丙子 6년 6월조 및 戊寅 8년 9월조). 1224년 10월의 사건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의혹의 배후에는 군권을 장악한 陳守度가 있었다고 여겨지며, 진수도의 정변은 1226년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224년 10월에 이미 일어났던 것이며 1226년 8월 10에 이르도록 장기간에 걸친 용의주도하고 면밀한 쿠데타였다. 용상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련의 변란은 커다란 위협으로 체감되었을 것이고, 용상의 존재는 진수도에게도 역시 가장 거북하고 거세해야 할 존재로 비쳤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용상이 1226년에야 대월을 떠났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陳煚이 황제가 된 것은 宋 寶慶 2年, 곧 1226년, 곧 혜종이 황위를 선양한 지 이태가 되는 해였다. 당시 진경은 昭皇을 皇后로 격하하여 이름을 昭聖으로 돌리고 陳守度를 太師統國로 삼았다. 그 다음 조치로 혜종은 1226년 정월 상황에서 폐위되었고 진교선사에 유폐되게 되었다. 강제로 퇴위당한 혜종이 진수도에게 시해된 것은 양위(1224년 10월)로부터 이태가 지난 1226년 8월 10일이었다(『대월사기 전서』권5 본기5 陳太宗 丙申 建中2년 8월 10일조). 요컨대 용상의 대월 탈출은 1224년 즈음이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17) 박순교, Vietnam(大越) 皇子 '李龍祥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2)－

78~80세 가량이 된다. 그렇다면 간의 생몰 연대는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을 경우, 1227년~1333년으로 劃定된다.[18] Lý Long Tường'의 1子 幹의 비속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화산이씨 1子 계열의 흐름
(원 안의 숫자는 李太祖 李公蘊을 기준한 세대수임)



'고려 移居 창작설' 검토를 중심으로 –, 『동아인문학』40, 2017에서 1) 대월 황제들 평균 수명과의 비교, 2) 18세기 자료에서 몽골 격퇴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3) 19세기 들어 몽골 격퇴가 집중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18) 일반적인 인간의 생식 연령과 기준이 아닌, 김유신과 같이 특별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그 범위는 보다 광범위해질 수 있다. 김유신은 61살에 지소와 결혼하여 문무왕 13년 즉 673년 7월 1일에 79살로 죽기까지 18년 동안 5남 4녀를 두었다(박순교, 『김춘추의 집권과정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1999, p. 263). 이렇듯 늙은 남자라 할지라도 젊은 여자와의 혼인과 통정에서는 2세의 출생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Lý Long Tường'이 8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고, 출생한 1子 간이 다시 80까지 장수하였다고 했을 경우 그 훙거 연대는 1333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

화산이씨 족보대로라면, 幹의 官歷은 金紫光祿大夫 壁上三韓三中大匡 都僉議左政丞 예문관대제학 監右文館事 判選部事로 나타난다.[19] 金紫光祿大夫는 종 2품의 관계이다.[20] 광록대부는 1076년(문종 30년)에 문산계 29계중 제3계로 정하여졌고,[21] 1275년(충렬왕 1년)에 그 명칭이 匡靖大夫로 바뀌었다가 종2품 상계로 바뀌고, 1361년 정2품 대부로 바뀌었다. 충렬왕 때 일시 없어졌던 광록대부는 다시 1356(공민왕 5)년에 종1품으로 승격, 잠깐 두어졌다가 1362(공민왕 11)년에 혁파되었다. 삼중대광은 1308년(충렬왕 34)의 정1품으로 설치되었다. 얼마 후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壁上三韓을 덧붙여 벽상삼한삼중대광이라고 불렸고, 1310년(충선왕 2), 삼중대광으로 다시 바뀌었다. 1356년(공민왕 5) 이후에는 정1품의 관계가 上·下로 나누어지는데, 1362년의 개정 때 벽상삼한삼중대광은 정1품 상계로, 삼중대광은 정1품 하계로 등장했다. 1369년 삼중대광은 다시 종1품 상계로 내려갔다.[22] 결국 벽상삼한삼중대광이 보이는 시기는 1308년~1310년, 1362~1369년 어간이 된다. 幹이 벽상삼한삼중대광을 역임한 시기는 충선왕대로 좁혀지고, 정1품의 관계에 있었던 셈이 된다. 幹의 도첨의 좌정승 역임은 충혜왕 때로 파악된다. 도첨의부는 百揆의 庶務와 간쟁과 封駁을 관장하는 官府로서, 고려 초의 內議省을 필두로, 中書門下省, 僉議府 등을 거쳐 都僉議使司로 이어졌다. 그 관부의 수장은 都僉議侍中, 중찬, 政丞 등이었다가, 충혜왕 때인 1339~1344년 左·右 政丞으로 개편되어 시행됐다. 1354년(공민

19)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玄

20) 金紫는 金印紫綬로서, 秦漢代에는 相國, 承相이 사용하였고, 晉代에는 光祿大夫도 이것을 사용함에 따라 南齋 이래 금자광록대부의 명칭이 있게 되었다.

21) 『고려사』권77 지31 백관2.

22) 『고려사』권77 지31 백관2.

왕 3)에 시중, 다시 우정승과 좌정승, 1356년 다시 시중, 1362년 僉議 左·右政丞으로 바뀌었다.[23] 종 1품의 도첨의 좌정승의 관직이 있은 시기는 충혜왕, 공민왕 치세가 되지만,[24] 幹의 생몰연대로 보아 충혜왕 때이다. 종 2품의 예문관 대제학의 경우, 예문관의 이름이 보이는 것은 1325년(충숙왕 12)부터이며, 그 아래 수찬 주부 각 1인과 검열 2인이 있었다. 예문관은 이후 1356년(공민왕 5) 한림원이 되었다가 1362년 예문관으로 복구되었다. 1362년 당시 예문관에는 종 2품의 대제학과, 그 아래 제학, 직제학, 응교 등이 있었다.[25] 예문관 대제학은 1362년 이후에 설치된 것이므로,[26] 幹의 생몰 연대를 고려할 때, 앞뒤가 부합되지 않는다. 기실 예문관 대제학은 족보의 오류이거나, 최소한 추증 관직일 것이 확실하다. 右文館은 고려시대 국왕에게 경서를 강설한 곳으로서, 충렬왕과 공민왕 때 주로 불린 명칭이다.[27] 판선부사는 충선왕·충숙왕 때의 관직이다.[28] 이로 보면 幹의 관력은 충렬, 충선왕 때로 압축된다.

고려조에서, 幹의 아들이자 李公蘊(Lý Công Uẩn)의 9세손 玄亮은 春秋館事, 李公蘊(Lý Công Uẩn)의 10세손 龍進은 尙衣院 直長,[29] 11세손 裕는 尙書省 右僕射를 거쳤다고 한다.[30] 춘추관사는 충숙왕 12년 領館事~同知館事까지 事가 설치되어 있었으니, 현량

23) 정진숙, 「고려시대 職官 변천 略表」, 『한국학대백과사전』, 을유문화사, 1994 초판 4쇄본, pp. 18~19.

24) 『고려사』권76 지30 백관1 門下侍中

25) 정진숙, 「고려시대 職官 변천 略表」, 『한국학대백과사전』, 을유문화사, 1994 초판 4쇄본, pp. 26~27.

26) 『고려사』권76 지30 백관1 예문관.

27) 『고려사』권76 지30 백관1 諸館殿學士

28) 『고려사』권108 열전21 諸臣 閔宗儒, 『고려사』권35 세가35 충숙왕 11년 2월

29)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玄

30)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玄, 「海隱先生 事實」, 李承哉, 『화산이씨 가전실록』, 蓉南石版所, 1921,

의 관력은 충숙왕 12년 이후 즈음일 것이다. 상의원은 고려조에서는 없던 관부로서, 조선조에서 임금의 의복을 지어올리고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의 간수를 맡아보던 工曹 산하의 관서였다.[31] 고려조에서는 尙衣局이 있었는데,[32] 1310년(충선왕 2) 掌服署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 尙衣局으로, 1362년 또 掌服署로, 1369년 다시 尙衣局으로, 1372년 또 다시 掌服署로 고쳐진 바 있다.[33] 고려조에서는 尙衣局, 掌服署가 번갈아 사용되었고 尙衣院은 사용되지 않았다. 만일 龍進이 조선조 상의원의 직장(從 7품)을 지냈는데, 용진의 아들 裕와 용진의 손자 孟雲이 조선의 관직 제수를 불응했다는 것은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다. 결국 장복서와 상의원의 관부 변천, 용진, 유, 맹운의 행적과 생몰 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의원과 관련한 용진의 관력은 착간으로 보이며, 문자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裕는 호가 海隱으로, 그가 역임했다고 하는 尙書省 右僕射는 정2품의 관직이다.[34] 그의 생몰 연대로 짐작하건대, 상서성 우복야 역임은 공민왕 대 이후의 일이라 짐작된다.

李公蘊(Lý Công Uẩn)의 12세손 孟雲은 구체적 생몰 연대가 불명이다. 그러나 려말·선초의 전환기에 있어 그의 남겨진 行藏이 力餘하다. 맹운의 호는 川隱, 鰲川徵士, 遯山小隱이었다. 그는 공민왕 때 찬성의 벼슬에 있었으나, 조정과의 不和 끝에 황해도 海州의 산천에 은둔하였다.[35] 맹운 자신의 바람처럼 깊은 산골 개천에

---

31) 정진숙, 「역대 職官表」, 『한국학대백과사전』, 을유문화사, 1994 초판 4쇄본, pp. 64~65.

32) 『고려사』권68 지22 예10 嘉禮.

33) 『고려사』권77 지31 백관2 掌服署.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尙衣局」 항목.

34) 정진숙, 「고려시대 職官 변천 略表」, 『한국학대백과사전』, 을유문화사, 1994 초판 4쇄본, pp. 20~21.

35)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黃, 「川隱先生本傳」, 李承哉, 『화산이씨 가전실록』, 蓉南石版所, 1921.

서 足浴하며 개천의 자라와 은거한 산 속의 작은 신선마냥 청초하고 적요한 삶을 이어갔다. 이후, 그는 개창된 조선조에서 한성판윤, 이조판서 등의 직책을 잇달아 제수했으나 不應하였고, 十隱의 한 사람이라 일컬어졌을 만큼 실로 浮雲같은 삶을 살았다.[36] 맹운의 아들로는 황해도 載寧郡守를 지낸 德從과, 司僕寺 副正(종3품)을 지낸 大從이 있다. 대종의 생몰 연대는 未詳이며, 덕종의 훙년만이 확인된다. 덕종은 明 선종 선덕 10(을묘), 1435(세종 17년)에 훙거했다. 대종은 다시 황해도 牛峰縣令을 지낸 澤, 上護軍(정3품)을 지낸 宮으로 分枝된다. 이후 이들 간의 비속은 校理公派, 主簿公派, 承旨公派, 直長公派 등 주로 관직의 이름을 앞에 붙여 분파되어 갔다.

澤의 생몰 연대, 墓의 위치는 失傳이다. 이어 澤의 비속인 石峻, 周孫, 夏孫, 宗伯, 元亨 등의 생몰 연대, 분묘 역시 失傳이다.[37] 종백의 子 龜齡의 자손들 경우 평안도 肅川 成川 祥原에 거하였다고 하나 回譜에 漏泄되고, 마침내는 왕래조차 두절되었다고 한다. 결국 택의 비속이 희미한 그림자만 남기고 이후 지리멸렬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 다른 갈래인 宮, 季安의 경우에도 생년은 불명이다. 둘의 훙년만 확인 가능하다. 궁은 1472년(성화 8년(임진) 9월, 성종3년), 季安은 1484년(성화 20년(갑진), 성종 15년 8월 16일)이다. 특히 궁의 경우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응부(兪應孚, ? ~ 1456년)와 교유했으며,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발하여 은둔한 것이 확인된다.[38]

---

36) Lý Long Tường', 아들 간, 손자 현량의 묘는 같은 권역, 옹진부 서쪽 10리 离乙峰 杜茂機 廣大山 산록에 있다. 그러나 용진과 유의 무덤을 실전하게 된 것은 조선 조정에의 不仕·은둔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37) 李承哉,『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黃,

38) 李承哉,『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黃, 한편 有周老君 정사 후 2434년 경인 2월에 찬했다고 하는 이씨 성원실에 위의 사실이 적혀 있다. 찬자는 未詳이다.

李公蘊(Lý Công Uẩn)의 16세손이자 幹의 9세손 葺에 이르러서야, 화산이씨 최초로 생몰 연대가 공히 확인된다.[39] 즙의 생몰 연대는 7수보의 경우, 세종 11년 을유년에 출생, 중종 21년 병술년에 훙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40] 5修譜의 경우, 즙은 세조 11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41] 세종 11년은 1429년 기유년이니, 을유년으로 표기된 7수보의 간지는 오기이다. 그의 훙년 중종 21년은 1526년 병술년이다.[42] 그렇다면 葺은 향년 97세로 6월 14일 훙거한 셈이 된다.[43] 그러나 「부호군공 묘지문」에서 그는 향년 62세로 훙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즙의 생년은 세조 11년 1465년임이 확인되어 5修譜의 기록이 정확함이 확인된다. 기타 葺과 同氣인 蕃과 萇의 생몰 연대는 不詳이다.[44] 뿐만 아니라 葺의 子 壽禧, 손자 岬, 증손 仁忠, 고손 述承 등 거의 모든 비속의 생몰 연대가 사실상 不詳이다.[45] 간혹 忌日이 적힌 경우만 눈에 띈다. 아마 이것은 조선의 제례와 연관이 깊지 않은가 한다.

---

39) Lý Long Tường'에서 葺에 이르는 세대는 총 9세대를 이룬다. Lý Long Tường'의 생년이 1173~1175년이므로, 즙의 밝혀진 생년 1465년을 비교, 계산하면 Lý Long Tường' 1자 幹의 한 세대 당 기간은 32.4(1465-1173/9)로 포괄 정리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Lý Long Tường'의 4세손 용진의 생년은 1267년~1269년, Lý Long Tường'의 5세손 裕는 1302년~1304년, Lý Long Tường'의 6세손 맹운은 1335년~1337년의 개략적 추정 연대가 산출된다.

40) 李相協, 「止庵承旨公 墓誌文」『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 5.

41) 李承哉『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宇.

42) 「부호군공 묘지문」, 李承哉,『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

43) 「부호군공 묘지문」, 李承哉,『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 Lý Long Tường'으로부터 거의 200년 만에 생몰 연대가 확인되는 최초의 인물이 출현한 셈인데, 과연 이러한 실전의 까닭이 무엇 때문일 것인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44) 李承哉,『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宇~宙.

45) 李承哉,『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月.

다만 壽福과 그의 비속은 예외적이다. 李公蘊(Lý Công Uẩn)의 17세손이자 葺의 子인 壽福은 생몰년이 확인된다. 그는 성종 25년 갑인에 출생하였고, 중종 24년 호조 좌랑으로 활약하였다.[46] 수복은 중종, 인종, 명종 3조에 출사, 옥당을 거쳐 谷山 군수로 나아갔다가 명종 13년 무오(1558) 12월 22일 관아에서 향년 65세의 나이로 훙거했다. 이어 1559년 11월 17일 송화 달마산 노가리 산록에 매장되었다.[47] 수복의 字는 申之이며, 號는 止庵이었다. 장흥에는 수복이 펼친 '絃歌'와 '牛刀'의 善政을 기리는 수복의 去思碑가 있었다. 수복의 아들 嶙은 중종 29년 갑오에 출생한 사실이, 손자 尙孝는 忌日만이 확인된다.[48] 그리고 조·일 전쟁(1592)을 거친 다음의 증손 珉, 고손 遇春의 생몰 연대가 확인된다. 珉은 만력 43년 을묘(1615년)에 출생, 효종 11년 기해(10년의 오기?, 1659)에 훙거하였다. 고손 遇春은 인조 25년 정해(1647)에 출생, 경종 2년 임인(1722)에 훙거하였다.[49]

한편 幹의 비속이 묻힌 묘를 통해서, 활동 권역의 一端을 추단할 수 있다. 幹의 묘는 Lý Long Tường'의 무덤과 동일 권역이었다. 하지만 幹의 손자 龍進, 증손 裕, 고손 孟雲까지 실전되었다.[50] 구전에 의하면 맹운은 三谷 棈縣에 매장되었다고도 한다. 이후 맹운의 1자 德宗은 三谷 遯山 國士峰 아래 남쪽 언덕에 묻혔

---

46)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洪.

47) 「지암 승지공 묘지문」,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洪.

48)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洪.

49)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洪.

50) 맹운의 두 아들이 현령과 상호군의 벼슬까지 역임한 사실, 추원보본을 목숨처럼 여기던 당시 사조 등을 고려할 때, 생몰 연대와 분묘의 실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조·일 전쟁(1592)과 같은 전란을 거치며 관련 자료의 일실 탓이라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선대의 묘역에 대한 기억만은 쉽게 망각되기 어렵다. 이는 시간과 달리 공간의 개념이다.

다.[51] 삼곡 둔산은, 맹운이 묻힌 해주 三谷 楕峴의 인근 지대가 아닌가 추측된다. 그렇다면 덕종의 묘는 황해 해주에 속한 셈이 된다.[52]

맹운의 2자 大從의 묘역은 松禾縣 동쪽 70리, 어천방 1리, 달마산 서남 蘆街里로 확인된다.[53] 이상한 것은 宮, 季安, 貲, 壽福, 枰, 憲國, 鼎新 등이 모두 노가리에 묻힌 점이다. 대종 이후의 인물들이 대거 송화현의 인근 蘆街里에 묻혔다는 것은 幹의 비속이 일대의 주변을 맴돌았고, 생활 반경을 유지했다는 일 증거이다. 대종이 송화 현감을 역임한 사실[54]로 보아 일대에 세거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도 추정된다. 한편 직장파의 시조인 蕃의 경우 直長(종7품)을 지냈고, 蘇門倉 가좌동 南麓에 매장된 것이 확인된다.

여하튼 옹진, 해주를 비롯한 황해도 일대에서 이들 비속이 생활 거점을 형성한 것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계속된 전란과 분단의 탓으로 다대한 권속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귀와 눈이 접촉되지 못하였고, 깨어진 항아리마냥 갈라져 길가는 남남으로까지 되었다.[55] 그 결과 비속이 분파된 이후의 세세한 동선이나 세거지, 뚜렷한 자취가 거의 포착되지 않게 되었으니, 가히 비운의 일족이라 일컫기에 족하다. 현재 화산이씨 종친회의 활동에서도, 校理公派, 主簿公派의 참집은 거의 없다.[56]

---

51)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黃.

52)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黃.

53)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黃.

54)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의 世譜 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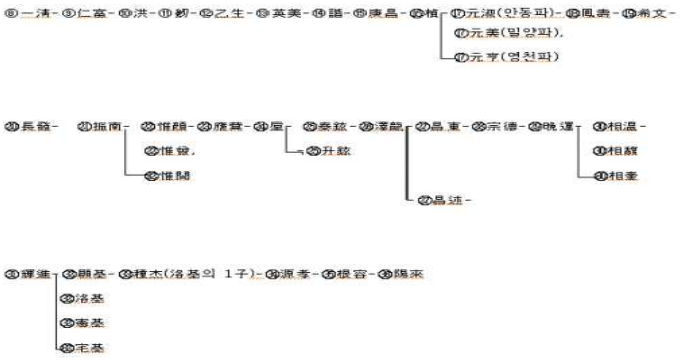
55) 垕, 「화산이씨 족보서」(李相協, 「화산군 본전」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215. 후가 말한대로 1자 계열, 2자 계열의 교통은 물론이고, 1자 계열 내에서조차 상호 교류, 교감은 단절되었다.

56) 괄목할 사실은 베트남에 귀화한 화산 이씨 李培鉉(일명 창근)이 승지공파의 후손(李公蘊(Lý Công Uẩn)의 32세손)이다. 그리고 그의 2子는 대월국에서 이름을 따서 越國이라 칭하고 있다(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Ⅳ. 2子 一淸의 계통과 흐름

전술한 바와 같이,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의 비속은 5修譜에 이르기까지 수록되지 않았다. 일청의 비속은 6수보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57] 별도로 전해지던 계보가 이즈음 합계되었다. 아래에서는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을 중심으로 그 직계 비속을 정리하였다. 일청으로부터 9세대에 이르면서, 일청의 비속이 안동파, 밀양파, 영천파로 分枝化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자 一淸의 비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화산이씨 2子 계열의 흐름
(원 안의 숫자는 李太祖 李公蘊을 기준한 세대수임)



회상사, 2004, p. 359).

57)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에서는 안동파(pp. 325~357), 밀양파(358~374), 영천파(375~388)를 최초로 수록하고 있다. 사실상 최초의 대동보가 탄생한 셈이다. 이전의 초보~5수보는 모두 1자 幹의 비속을 다루었던 바, 그것은 현존 5수보에 2子 一淸의 비속이 모두 제외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곧 초보~4수보에 2子 일청의 비속이 담겨 있었다면, 새삼 5수보에서 그 내용이 빠질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Lý Long Tường'의 2子 一淸의 생몰 연대 역시 불명이다. 일청의 관력은 고려조에서 長史(종6품), 안동 부사로 확인된다.[58] Lý Long Tường'이 고려에 이거한 것이 1226년경이므로, 2자 일청의 출생은 빨라도 1228년일 것이다. 그리고 일청이 장성하여 안동부사의 직위에 오르려면 최소 3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점을 전후한 안동의 변천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동은 Lý Long Tường'이 고려에 이거한 1226년 무렵 안동부였고, 충렬왕 34년(1308년) 복주목으로 바뀌었다. 공민왕 11년(1362년) 안동대도호부로 승격되었고, 우왕 9년(1383년)~우왕 14년(1388)까지 안동도였다가 이후 고려 멸망까지 안동부로 일컬어졌다.[59] 결국 안동부사는 1226~1308, 1362~1383, 1383~1392까지 통용된 한시적 관직이었다. 일청이 안동부사로 있었던 시기는, 위 안동부의 개폐 시기와 부합될 것이 틀림없다. 그 중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기는 1226~1308의 시기로 추정된다. 안동부사는 고려 문종이 정한 지방관 녹봉제에 의하면 상위 6번째, 86석 10두의 녹봉을 받는 관직이었다.[60]

일청 계열 역시 一淸~希文에 이르기까지, 11대에 걸쳐 생몰 연대가 모두 未詳이다. 대신 관력만이 주로 나타난다. 元淑~希文 3대의 경우에는 더하여 忌日도 보인다.[61] 일청의 子 仁富, 손자 洪은 고려 중앙군 2군 6위의 하나인 金吾衛(備邊巡衛)에 몸을 담았다. 기록대로라면, 釰은 神虎衛, 乙生은 황해 봉산의 嘉順宮 副使, 英美는 侍衛司 中領 副司正, 諧는 文科 中郎將, 庚昌은 文科 副司正 從士郎을 거쳤다. 주목되는 것은 庚昌의 子 楨이 봉화 訓導였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인연 때문인지 楨의 손자 鳳壽대에 이르러

58)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325.
59) 『신증동국여지승람』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건치연혁.
60) 『고려사』권80 志34 食貨3 문종
61)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325

일가는 봉화 창평리로 이거했다. 그 봉수의 손자가 조·일 전쟁(1592년) 때 전사한 長發이다.[62]

일청의 비속은 8세대를 거치면서 안동, 봉화, 밀양, 영천 등의 지역으로 계속하여 分枝해 나갔다. 현재 경북에 거주하는 화산이씨는 전체 58명으로 확인된다. 또 인근의 대구광역시에는 43명의 화산이씨가 있다. 일청 비속의 주요 세거지 안동, 봉화, 밀양의 경우, 안동 10명, 봉화 14명, 밀양 6명 등 총 30명이 거주하고 있다. 화산이씨 족보에서 세거지로 운위된 영천에는 현재 화산이씨가 아예 없다. 기타 포항 8명, 청도 6명, 경주 5명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63] 안동파의 시조 元淑은 기자전 참봉을 지냈으나, 생몰 연대는 未詳이다.[64] 元淑의 아들 鳳壽는 司僕寺 主簿였고, 봉수의 손자가 長發이었다.[65]

일청의 비속은 안동, 밀양, 영천 등 각기 세거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세거지를 고집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李公蘊(Lý Công Uẩn)의 28세손이자 일청의 21세손인 밀양파 光春의 경우, 묘는 밀양이 아니라 현재의 봉화 봉성면 창평리 북산(금혈산)임이 확인된다.[66] 광춘을 전후하여 寅郁, 寅文, 光國, 晩運 또

62)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의 비속들의 경우 생몰 연대가 거의 未詳이다.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에서 子 仁富, 손자 洪을 거쳐 증손 釗, 고손 乙生, 그리고 英美, 諧, 庚昌, 楨, 元淑, 鳳壽, 希文에 이르는 장장 12세대의 생몰 연대가 모두 미궁에 빠져 있다. Lý Long Tường'의 14세손인 장발의 생년은 선조 갑술(1574년)이다. Lý Long Tường'의 생년인 1173~1175년과 Lý Long Tường'의 14세손 장발의 생년 1574년을 비교 계산하면, 한 세대 당 평균 기간은 30.69~30.84년(1574−1173(1175)/ 13)이 산출된다.

63) 박순교, 「선조 흔적 찾아 봉화에 온 베트남 대사」, 『봉화일보』 특집기사, 2018.1.8.

64)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325.

65)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325.

66)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364.

한 봉화 창평에 매장되었다.[67] 밀양파의 절대 다수는 舞亭村, 기타 鍾承(李公蘊(Lý Công Uẩn)의 33세손)과 炳源(李公蘊(Lý Công Uẩn)의 34세손)의 경우 밀양의 武安雲町,[68] 華基(李公蘊(Lý Công Uẩn)의 32세)의 처 평산신씨, 仲基(李公蘊(Lý Công Uẩn)의 32세)·처 김해김씨의 別墳, 鍾守(李公蘊(Lý Công Uẩn)의 33세)의 경우 밀양 청운 尙山[69], 또 다른 일부는 (今)兎山, 成佛山에 각기 매장되었다.[70] 특히 인문, 인욱으로부터 만운에 이르는 3대의 매장지는 주목을 끈다.[71] 이들 3대의 묘역이 특이한 만큼, 이들이 봉화 창평의 실거주 가능성도 높다. 광춘의 字는 德山으로 영조 정해 9월 6일 출생하여 영조 병인 3월 7일 훙거했다. 광춘의 묘는 봉화 창평에 있다. 광춘의 아들 만운은 밀양파였으나, 李公蘊(Lý Công Uẩn)의 28세손이자 일청의 11세손인 안동파 宗德의 양자로 入系되었다.[72] 만운이 봉화로 입계된 이상, 1)만운이 자신의 부친 광춘

67) 휘대 역시 봉화 창평에 매장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의 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今穴은 金穴과 같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364)

68) 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 420.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50,000 지형도를 기도로 한 밀양시 관내도에 의하면, 무안운정은 현재 武安面 雲汀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위치는 무정촌(무연리)의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다.

69) 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p. 421~423.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50,000지형도를 기도로 한 밀양시 관내도에 의하면, 靑雲은 舞鳶里(무정촌)과 운정 사이에 넓은 벌판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화산이씨 밀양파의 주거지는 무연~운정에 이르는 지역이었다고 판단된다. 기타 '大峴佛堂'에 안치된 다수가 발견되고 있으나, 손정태 밀양문화원장에게 자문한 결과 밀양에는 '대현'의 지명이 없음을 확인했다.

70)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p. 363~364. 李公蘊(Lý Công Uẩn)의 29세손 逸植(성불산), 李公蘊(Lý Công Uẩn)의 30세손 相東(토산),

71) 李公蘊(Lý Công Uẩn)의 31세손 輝大의 묘가 금혈 숲 바깥인 점(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 419)에서 봉화 창평 금혈산 인근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의 묘를 봉화 선영에 매장했을 가능성, 2)밀양에 거주하였으되 장지만 봉화에 꾸렸을 개연성, 3)광춘의 생존시에 밀양에서 봉화로 이거한 것일 개연성 등이 상정될 수 있다. 여하튼 밀양파 광춘과 안동파 종덕 간의 교감이나 유대, 상호 교통이 적잖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

앞서 말한 대로, 현재 밀양에는 6명의 화산 이씨 성원이 있고, 화산이씨 족보에는 밀양파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밀양파의 시조 元美는 字가 聖壽였다. 그는 고려조 밀양부사를 하였고, 그 이후 밀양에 세거지를 형성했다고 한다.[73] 원미는 李公蘊(Lý Công Uẩn)의 17세손이며, Lý Long Tường'의 11세손이다. 일청 가문의 평균 세대수, 세대 기간을 적용하면, 원미의 생년은 조선 개창 이후 거의 백년에 육박하는 시기로 추산된다. 따라서 원미는 결코 고려의 인물일 수 없다.[74] 또 다른 방법으로 원미의 생년을 추산할 수 있는데, 원미의 증손 淑文의 생몰 연대가 명종 때로 나타난다.[75] 따라서 원미는 고려조의 인물이 아니라

---

72) 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 376.

73)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358. 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 413

74) Lý Long Tường'의 생년을 기준으로 하여,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의 비속 평균 세대수와 세대 기간의 평균치×Lý Long Tường'~원미에 이르는 세대수를 대입·적용하여 원미의 생년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173~1175)+30.69(30.84)×10=1479.9(1481.4)년이 산출된다.

75) 원미의 증손 숙문은 명종 을묘(1555) 9월 10일 출생하여 병자 10월 25일 훙거한 것이 확인된다. 비록 족보에는 왕호가 없으나 명종의 치세에 병자는 나올 수 없기에 선조 9년의 병자(1576), 아니면 인조 14년의 병자(1636)로 보인다. 이 경우 숙문은 21세, 혹은 81세로 훙거했을 개연성이 있다. Lý Long Tường'의 생년 1173~1175년을 기준으로 하고, 다시 숙문의 생년 1555에서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의 비속 평균 평균 세대수와 세대 기간의 평균치×원미~숙문에 이르는 세대수를 적용·감산하여 원미의 생년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555−{30.69(30.84)×3)}=1462년 전후의 수치가 산출된다. 결국 원미는 고려조의 인물일 수가 없다.

조선조의 인물이 확실하다. 이로써, 화산 이씨 족보에서 원미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생몰 연대는 사실과 꽤나 동떨어져 있음이 드러난다.

또 원미가 밀양부사를 역임했다면, 밀양에 부가 있었던 시기라야 한다. 밀양의 건치 연혁은 密城郡(신라 경덕왕)-密州刺史(고려 성종)-知密城郡事(현종)-歸化部曲(충렬왕)-密城縣-密城郡-密城縣-密陽府(공양왕)(以上 고려)-密城郡(조선 태조)-密陽府(태조 3년)[76]-密陽郡-密陽도호부(以上 조선)의 순서로 변화했다.[77] 고려의 경우 밀양부가 설치된 시기는 공양왕 이후부터이며, 조선의 경우 조선 태조 3년 이후부터였다. 공양왕의 치세는 1389~1392에 불과하다. 원미의 생몰 연대를 고려할 때에도 원미는 공양왕 치세의 인물일 수 없다. 결국 원미는 조선 태조 이후 밀양부 부사(종3품)를 역임했다고 봐야 옳지만, 현재 『밀양부 선생안』에서 그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78]

元美로부터 시작된 밀양파의 선영은 화악산 주봉의 끝자락(현재의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뒷산)에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화산이씨 족보를 통해, 지금의 舞鳶里가 당시 舞亭村이라 불렸다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난다.[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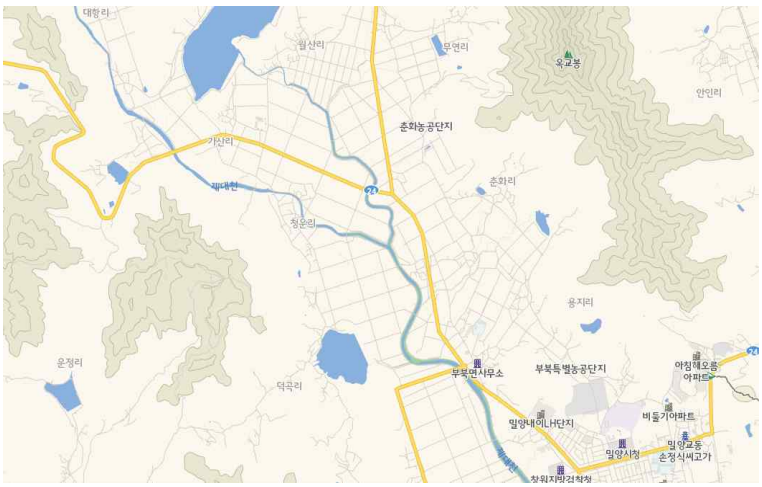
---

76) 『조선왕조실록』태조 3년 갑술(1394) 2월 15일조.

77) 『신증동국여지승람』권26 경상도 밀양도호부 건치연혁

78) 손정태 밀양문화원장에게 자문한 결과, 『밀양부 선생안』에는 '원미'의 이름이 없음이 확인됐다. 아마도 원미의 밀양 부사직은 증직일 개연성이 높다.

79)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358.



<그림 1> 화산이씨 밀양파 묘역(무연리~운정)



<그림 2> 화산이씨 밀양파 무연리 묘역 일부(2013년 필자 촬영)

여기에는 원미를 필두로 현재까지의 총 38기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족보 속 舞亭村에 묻힌 인물들과는 7基의 차이를 보인다.

족보 속 舞亭村에 묻힌 인물들은 45기로 정리된다.[80] ①元美(李公蘊 17세손), ②龜壽(李公蘊 18세손)·전주이씨 合墳, ③乙忠(李公蘊 19세손), ④淑文(李公蘊 20세손)·⑤파평 윤씨의 雙墳, ⑥希長(李公蘊 21세손), ⑦弘培(李公蘊 22세손)·⑧성주呂氏의 別墳, ⑨鳳陽(李公蘊 23세손)·⑩안동손씨의 別墳, ⑪秀英(李公蘊 24세손)·⑫수성羅氏의 雙墳, ⑬友樟(李公蘊의 25세손)·진주강씨의 合墳, ⑭敬一(李公蘊의 26세손)·金寧金氏의 合墳, ⑮德一(李公蘊의 26세손)·선산김씨의 合墳, ⑯貫一(李公蘊 26세손)·밀양박씨의 合墳, ⑰寅卨(李公蘊의 27세손)·김해김씨의 合墳, ⑱寅元(李公蘊의 27세손)·파평윤씨의 合墳, ⑲友柏(李公蘊의 25세손)·⑳진주강씨의 雙墳, ㉑揆一(李公蘊의 26세손)·㉒밀양박씨의 雙墳, ㉓寅華(李公蘊의 27세손)·㉔경주이씨의 雙墳, ㉕宅春(李公蘊의 28세손)·순천박씨의 合墳(?), ㉖英實(李公蘊의 29세손)·㉗盆城 배씨·㉘인천이씨, ㉙相淳(李公蘊의 30세손)의 처 평산신씨, ㉚輝弼(李公蘊의 31세손)·㉛김해김씨의 雙墳, ㉜寅協(李公蘊의 27세손)·㉝창녕조씨의 連墳(舞亭 待榜谷), ㉞庭春(李公蘊의 28세손, 舞亭 待榜谷), ㉟天泰(李公蘊의 28세손)·㊱의령남씨의 雙墳, ㊲潤昌(李公蘊의 29세손)·㊳盆城허씨의 別墳, ㊴相龍(李公蘊의 25세), ㊵得昌(李公蘊의 30세손)·김해김씨의 合墳, ㊶華基(李公蘊의 27세손), ㊷鍾承(李公蘊의 28세손)의 처 金寧김씨, ㊸根壽(李公蘊의 30세손)의 처 밀양박씨, ㊹泳源(李公蘊의 34세손)의 처 청도김씨, ㊺鍾守(李公蘊의 33세손)의 처 평산신씨(舞亭 待榜谷) 등 45기에 달한다.

---

80) 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p. 413~428.

비록 7기의 누설이 있다고는 하나, 조·일 전쟁(1592년) 이전 인물이자, 밀양파의 시조인 원미를 필두로 조성된 화산 이씨 밀양파 묘역은 희소한 화산 이씨 성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임이 틀림없다.[81] 이 무연리 뒷산을 기점으로 華基(李公蘊(Lý Công Uẩn)의 32세)의 처 평산신씨, 仲基(李公蘊(Lý Công Uẩn)의 32세)·처 김해김씨, 鍾守(李公蘊(Lý Công Uẩn)의 33세)등이 묻힌 밀양 청운 尙山과,[82] 鍾承(李公蘊(Lý Công Uẩn)의 33세손)과 炳源(李公蘊(Lý Công Uẩn)의 34세손)이 묻힌 밀양의 武安 雲町[83]은 하나로 연결되어 V자 구릉에 가까운 골짜기를 형성한다. 이는 이른바 한국판 화산이씨 'Royal Tomb's Valley'의 遺地라 칭할 수 있겠다.

---

81) 李公蘊(Lý Công Uẩn)의 31세손이자 밀양파의 종손인 이양원이 현재 이 묘역을 관리하고 있다. 필자는 2013년 이양원의 안내로 이들 묘역을 직접 답사, 참관하였다.

82) 李相協,『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p. 421~423.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50,000 지형도를 기도로 한 밀양시 관내도에 의하면, 靑雲은 舞鳶里(무정촌)과 운정 사이에 넓은 벌판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화산이씨 밀양파의 주거지는 무연~운정에 이르는 지역이었다고 판단된다. 기타 '大峴佛堂'에 안치된 다수가 발견되고 있으나, 손정태 밀양문화원장에게 자문한 결과, 밀양에는 '대현'의 지명이 없음을 확인했다.

83) 李相協,『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 420.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50,000 지형도를 기도로 한 밀양시 관내도에 의하면, 무안운정은 현재 武安面 雲汀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위치는 무정촌(무연리)의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다.

Ⅴ. 惟顔과 垕가 남긴 기록들.

1. 惟顔의 「遺事」, 垕의 「족보 序」

惟顔이 작성한 「遺事」는 주목할 자료이다. Lý Long Tường' 2子 계열은 물론이고, Lý Long Tường' 1자 계열을 포함한 전체 권속을 통틀어, 惟顔의 「遺事」가 가장 앞선 기록이기 때문이다. 惟顔은 Lý Long Tường'의 16세손, 일청의 15세손, 장발의 손자이다. 惟顔의 생몰 연대는 광해 경술(1610년) 11월 13일~숙종 기미(1679년)2월 23일이다. 그의 생몰 연대로 확인컨대, 「遺事」는 어떤 다른 기록보다 앞선다. 惟顔이 작성한 「遺事」는 문자 그대로 장발의 기록 중 빠진 내용을 추려 만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장발의 義烈을 기리고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惟顔이 작성한 「遺事」의 총 글자는 692자이다. 이 중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보다 뒤로는 惟顔의 손자인 垕의 「족보序」, 「開丹先塋記」가 있다. 垕는 Lý Long Tường'의 2子 일청의 후손으로 안동파에 속한다. 垕는 대월 李公蘊(Lý Công Uẩn)의 24세손, Lý Long Tường'의 18세손이자, 惟顔의 손자이며 장발의 5세손이다. 垕의 초휘는 鶴齡이며, 생몰 연대에서 그는 효종 병신(1656)에 태어나 숙종 병신(1716)에 훙거했다.[84] 「開丹先塋記」의 작성일자는 丁亥 4월 20일로 나타난다. 따라서, 垕의 생몰 연대를 고려할 때 「開丹先塋記」는 1707년 4월 20일 작성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垕가 「開丹先塋記」를 작성할 당시 垕는 51세였고, 그로부터 9년을 더 살다 훙거하였다.

枰(Lý Long Tường'의 1子 계열)과 垕(Lý Long Tường'의 2子

84)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p. 328~329.

계열), 두 사람은 2세대의 차이, 21살의 나이차가 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 자신의 가계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枰의 「초보서」(1706), 후의 「개단선영기」(1707). 그럼에도 둘은 서로 다른 권역에 머물렀고 상호간 교감은 없었다. 그 결과 독립된 기억의 서술로서, 枰과 垕의 별개의 서술이 존재하는 셈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Lý Long Tường'의 시원을 추적하는데 있어 두 사람이 남긴 기록은 별개의 결정적인 증좌로 이해해도 온당하다. 당시 화산이씨 일족들이 Lý Long Tường'을 族祖로 하였다면, 필히 기록했어야 마땅한 Lý Long Tường'에 대한 언급이나 追想이, 2개의 자료 곧 1706년(枰의 화산이씨 序)과 1707년(垕의 「開丹先塋記」)의 자료에서 공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데 또 주목할 것은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의 18세손 垕가 화산이씨 족보 序를 남겼다는 점이다.[85] 序의 작성 연대는 赤猪(붉은 돼지띠)의 해로 표기되어 있다.[86] 垕의 생몰 연대는 효종 병신(1656)에 태어나 숙종 병신(1716)에 훙거한 것이 확인된다.[87] 그렇다면 후의 생몰 연대 중 정해년을 따지면 후의 족보서는 1707년임이 분명하다. 극히 예외적으로 후의 족보서에는 월·일까지 나타나 있다. 곧 淸和節 16일의 표기가 보인다. 따라서 垕의 족보 序는 1) 1707년 4월(淸和節) 16일 작성되었

85)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215. 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p. 238~240. 후의 화산이씨 족보서는 초보~5수보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 초보서의 내용은 Lý Long Tường' 시조 설화가 과연 1706년 이후 창작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별할 가장 중요한 전거라 할 수 있다.

86) 乙은 木, 색은 청색이며, 丁은 火이고 색은 적색이며, 己는 土이고 색은 황색이며, 申은 金이고 색은 백색이고, 癸는 水이고 색은 흑색이다.

87)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p. 326~327.

다는 사실, 2)Lý Long Tường'의 2자 계열 역시 족보(실제로는 波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전승했던 점 등을 실증한다. 무엇보다 위 序는 「開丹先塋記」보다 4일이나 빨리 작성된 기록이기도 하다.

1) 「開丹先塋記」, 2) 이평의 「구보서」[88]에서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언급이 공히 없다. 한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垕의 화산이씨 족보 序에서는 Lý Long Tường'에 대해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枰의 「초보서」(구보서)의 경우, 평의 훙거 후 증직된 관직이 붙여져 있다. 다시 말해 枰 생존 당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해 의구심을 품게 한다.[89] 까닭에 1707년 4월 16일 垕가 작성한 족보 序[90]야말로 현재 Lý Long Tường'에 대하여 남아 있는 명실상부한 화산 이씨 最古의 기록인 셈이다.[91]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

88) 李承哉, 『화산이씨 세보』, 蓉南石版所, 1921, 卷1.

89) 박순교, 「花山君 '李龍祥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Ⅰ)」, 『택민국학연구논총』15, 2015, p. 310.

90)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목차 항목에서는 화산이씨 譜序로 되어 있고, 같은 책 p. 215의 본문에서는 화산이씨 族譜序로 표기되어 있다.

91) 片倉 穰, 『朝鮮とベトナム 日本とアジア』 福村出版, 2008, p. 105에서는 枰의 구보서(1706)에 화산이씨의 鼻祖 Lý Long Tường'이 보이지 않는 점에 의문을 표시하고 18세기 후반의 어느 시기에 조선의 여타 數多한 족보처럼 창출, 편찬된 것이라 논하고 있다. 편창양이 1706~1777년 사이 조선에 전해진 대월의 정보를 바탕으로 화산이씨 족조, Lý Long Tường'이 허구로 안출되었다고 한 가설을 뒤집을 결정적 전거가 바로 1707년 垕가 작성한 화산이씨 족보 序인 셈이다.

<표 5> 화산이씨 족보의 간행과 序

花山李氏 世譜	作成者	年代	經過	비고
草譜舊序	後孫 工曹佐郎 李枰	1706(숙종 32년)8월 3일	祖系가 散失되어 作成	1子 계열
族譜 序	後孫 垕	1707년(숙종33년)4월 16일	2자 계열 족보의 서	2子 계열
重修舊序	後孫 李義之	1777(정조 원년) 7월	草譜로부터 71년	1子 계열
3修譜 序	唐城人 洗馬 洪直弼	1837(헌종 3년) 4월	重修로부터 60년	1子 계열
4修譜 序	豊壤 趙康夏	1873(고종 10년) 9월上澣	3修로부터 36년	1子 계열
5修譜 序	後孫 李秉華	1917(大正 丁巳) 5월上澣	4修로부터 44년	1子 계열
6修譜 序	後孫 李福永 외4인	1987년 6월	5修로부터 70년	대동보
7修譜 序	後孫 李福永 외6인	2004년 9월 1일	6修로부터 17년	대동보

위의 표에서 2자 계열의 족보(垕의 족보서)가 새로이 추가된다. 또 이 2자 계열의 족보는 1자 계열 枰의 초보보다 연대 상 일견 늦게 비칠 수 있다. 한데 枰의 「초보서」에서 枰의 사후 증직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垕의 「족보서」가 最古의 족보序라 할 수밖에 없다. 또 1707년 4월 16일 작성된 垕의 「족보序」에서 Lý Long Tường'에 대한 명징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1706~1777년 어간에 대월에서 조선에 전파, 전래된 정보와 서적을 바탕으로 Lý Long Tường' 시조 설화가 시차별, 단계별로 창작되었다는 片倉 穰의 입론[92]을 근본에서 반박하고 허무는 결정

92) 序の記載によると、1706年に最初の序が執筆され、1777年、1837年、1873年、1917年に修補を経たものである。さらに最新版の花山李氏の『族譜』は1987年、2004年にも修譜が施された。これらの序文で注目されることは、1番最初の序に、ベトナム王子・李龍祥のことが一言も触れられず、始祖がベトナム王朝の王族出身ということを記載していないが、1777年の第2修譜から第5修譜までの序では、始祖たる李龍祥の事蹟が強調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最初の序にベトナム李朝や李龍祥の名が見当らない理由は詳かでなく、1777年の重修で、初めて李龍祥を始祖とする世系が成立したと推測できる。もし花山李氏の始祖を李龍祥とする伝承を史實と解するならば、この『世譜』の序に、最重要な始祖についてなぜ記載されていないのか

적 증좌인 셈이 된다. 말하자면 片倉 穰은 1)화산 이씨 족보가 두 갈래로 나눠 보전되었고, 2)1987년 6수보(대동보)로 간행되었으며, 3)6수보(1987)·7수보(2004)에서 보이는 塤의 「족보序」가 지닌 중요성을 간취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결정적 실수를 자행한 셈이었다.

위의 초보~5수보가 1자 계열 중심이었다면, 塤의 「족보서」는 2자 계열 중심임을 뚜렷하게 보인다. 둘을 합친 대동보의 간행은 1987년 6수보부터이다. 7수보는 6수보의 내용에 해석을 첨부한 대동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결과 6수보는 1子 계열, 2子 계열이 제각기 보존해왔던 자료가 최초로 합쳐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를 드러내려 한 듯 족보 옆에 '全'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았다. 6수보의 경우, p. 215의 화산이씨 譜序에서부터 2자 계열의 족보 내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진다.[93] 그 결과 6수보의 경우 相似한 화산군 본전이 3군데(p. 1, p. 227, p. 229)에 걸쳐 확인된다. 또 6수보에 이르러서야 「충효당 실기」, 「충효당 유집」 등 최초로 장발과 관련한 기록이 확인된다.

2. 塤의 「開丹先塋記」와 화산 이씨의 권역

塤의 「開丹先塋記」는 문자 그대로 개단에 조성된 화산이씨 안동파의 선영에 관한 서술이다. 작성시점은 1707년 4월 20일이고, 작

說明を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の『世譜』の重修の序に李龍祥が登場する18世紀後半は、僞譜を含む多くの族譜が編纂されたことであったが、この時期に花山李氏のような『世譜』を創出・編纂し得る環境が存在したことを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という.(片倉 穰,『朝鮮とベトナム 日本とアジア』福村出版, 2008, pp. 104~105). 이러한 논지에서 片倉 穰은 논문 전편(pp. 97~120, 위의 책)에 걸쳐 Lý Long Tường' 창작의 전거를 다방면에서 추적, 고찰하고 있다.

93)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목차 항목.

성자는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의 16세손 垕(1656~1716)이다. 후는 또한 장발의 5세손이기도 하다.[94] 후가 작성한 선영기의 開丹은 고려 당시 안동부 皆丹縣이었고, 선영기가 작성되던 조선시대에는 皆丹 部曲으로 밝혀져 있다.[95]

「開丹 先塋記」에는 李公蘊(Lý Công Uẩn)의 8세손 일청이 개경에서 福州로 이거한 얘기로 시작하여 史蹟과 문헌이 유실된 사실, 태종 18년 무술(1418)에 이르러 奈城郡에 卜居한 사실이 적혀 있다. 다만 복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96] 당해 기록은 또 봉화 훈도를 역임한 楨의 세대에 이르러 안동현 開丹에서 봉화 昌海에 이거했음을 밝히고 있다.[97] 곧 개경-복주-내성군-개단-봉화 창해(창평)로의 동선과 궤적이 서술되어 있는 셈이다.

먼저 「開丹 先塋記」에 보이는 開丹은 조선의 기록에서는 皆丹으로 표기되어 있고[98] 행정 구역으로는 部曲으로 되어 있다. 또 개단은 奈城縣(현재의 봉화 봉성면)의 북쪽 25리에 있음이 확인된다.[99] 이로써 1)개단과 奈城은 25리의 거리를 두고 남북으로 떨어

---

94) 화산이씨 편찬위원회, 『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p. 326~327.

95) 『신증동국여지승람』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96) 1418년에서 Lý Long Tường'의 생년(1173~1175)을 뺀 수치에서, 앞서 산출한 수치{Lý Long Tường'의 생년을 기준으로 하여, Lý Long Tường'의 2자 일청의 비속 평균 세대수와 세대 기간의 평균치}로 나눌 경우, 개략적인 세대수가 추정될 수 있다.
1418-1173(1175)/30.69(30.84)= 7.879~7.917이 나오게 된다. Lý Long Tường'으로부터 8세대를 따져 보면, 庚昌이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

97) 李垕, 「開丹先塋記」(『『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255. 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p. 343~345.

9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속현 皆丹 部曲 항목. 『대동지지』 방면 皆丹 部曲 항목.

9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속현 皆丹 部曲 항목. 내성현은 충혜왕 때 환관(宦者) 강금강(姜金剛)이 元에 들어가 왕을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했으므로, 그 고향 퇴관 부곡(退串 部曲)을 柰城縣으로

진 별개의 지점이라는 사실, 2)奈城이라는 행정 지명이 충혜왕 때 이후 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3)奈城縣은 있었으나[100] 奈城군은 없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101] 奈城縣은 1914년 乃城面으로 이름이 개명되는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봉화 봉성면으로 바뀌었다.[102] 창해(창평) 역시 봉화 봉성면에 있다.[103] 그리고 개단은 내성현에서 북쪽 25리 지점의 부곡이었으며,[104] 奈城의 옛 현으로 나타나고 있다.[105] 안동부의 북쪽 90리 지점에 奈城縣이 있었고, 안동부의 북쪽 1백 12리 지점에 춘양현이 있었다[106]는 점에서, 奈城縣과 춘양현은 남북 22리의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

승격시켰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대동지지』 고읍 皆丹 部曲 항목.

10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속현 奈城縣 항목에 의하면 奈城縣은 부의 북쪽 90리에 위치하였음이 확인된다.

101) 「開丹先塋記」의 柰城郡은 柰城縣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남겨진 기록을 전거로 할 때, 柰城 지역은 郡으로 불린 적이 없다.

102) 대동여지도 상으로는 奈城은 봉화에서 순흥 방면의 途中에 있는 것이 확인되며, 沙郎堂의 우측, 松官山과 堂北山의 북쪽에 처한 것이 확인된다. 내성현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이 주목된다. 봉화읍은 본래 퇴관부곡(退串部曲)이었으나 고려 제28대 忠惠王 때 이 고장 사람인 宦者(내시) 姜金剛이 元에 들어가 侍衛한 공이 있어 奈城으로 이름을 고치고 縣으로 승격시켜 安東府에 속하게 했다. 光武 10년 丙午(1906)에 안동부에서 봉화군 내성면으로 분할되었고 順興府의 花川面을 편입시켰다. 1956년 내성면을 奉化面으로 개칭하고, 1979년 5월 1일 봉화읍으로 승격되었다. 위의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봉화군청이 소재한 봉화읍 역시 내성현의 한 갈래라 할 수 있다.(『봉화군사』, 2002, pp. 10~11)

103) 춘양현이 부의 북쪽 1백 12리에 있고, 내성현이 부의 북쪽 90리에 있다는 점(『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에서, 내성현과 춘양현은 남북 22리의 차이를 보인다. 결국 내성현은 춘양에서 남쪽 지점에 위치한 것이 되어, 현재의 봉화 봉성면에 해당된다.

10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속현 皆丹 部曲 항목.

10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방면 항목

10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속현 항목

면, 위의 개단은 춘양현(현재 봉화의 춘양면)일 개연성이 크다.[107] 춘양현의 境域은 안동부 북 1백리~2백 15리 사이로 특정된다.[108] 춘양현의 南端이 개단의 핵심 권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塁는 계유년 3월, 皆丹의 도산 골짜기(道山谷)를 찾아 綠陰과 잡초로 뒤덮여 황폐해진 古冢들을 바라보며 망극한 슬픔과 비탄을 주체할 수 없어 탄식하고 있다.[109] 이에서 개단, 道山은 母집합과 部分집합의 연관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개단은 세종, 성종 치세에도 등장하는 안동부 관할하의 이름난 부곡의 하나였다.[110]

1914년 행정 구역 변경의 결과, 춘양에 속했던 皆丹里 일부는 현재의 물야면 개단리가 되었다. 그리고 八隱里, 개단리의 나머지 일부, 수식면의 山雲里, 倉上里, 倉下里, 물야면의 水息里 일부가 합쳐져 현재의 水息里가 되었다. 결국 현재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수식리 일대 역시 「開丹 先塋記」에 등장하는 개단의 한 갈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데 塁가 소리 높여 무력감을 토로하고 탄식하였던 사실, 영락한 집안의 현실에 강개했던 사실이 주목된다. 이처럼 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실전된 개단 선영의 인물들은 누구일까? 그 범위를 좁혀 보면, 우선 塁의 생몰 연대보다 앞서는 인물일 것이며, 福州(안동)에 이거한 一淸 이후의 인물일 것이다. 곧 一淸에서 子 仁富, 손자 洪을 거쳐 증손 釗, 고손 乙生, 그리고 英美, 諧, 庚昌, 楨,

107) 개단부곡에는 可丘村, 鴨丘村, 道心村, 川坪村 등이 있었고, 특히 도심촌은 춘양면 도심리였다고 적시되고 있다(『봉화군사』, 2002, pp. 680~681).

108) 『대동지지』 권7 경상도 15읍 안동 방면 항목

109) 李塁, 「開丹先塋記」(『『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p. 255. 李相協, 『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pp. 343~345.

110)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안동 대도호부, 『성종실록』 권259, 성종 22년 11월 30일 임인 1번째 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元淑, 鳳壽, 希文에 이르는, 생몰 연대가 미궁에 빠진 12세대가 이 범주에 들어갈 인물들이 아닌가 한다.

이상의 검토에서 개경-안동부-奈城縣(현재 봉화읍·봉성면)-개단현(현재 봉화 춘양면·물야면)-창해(현재 봉화 봉성면 창평)[111] 등으로 화산이씨의 동선이 확인된다. 특히 개단에는 일청~희문에 이르는 일족의 선영이 조성되었음이 추정된다. 한데 古冢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垕의 생존 무렵부터 이미 실전되었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화산 李氏'의 족보 내용과 편찬 과정, 족보의 갈래, 분묘를 중심으로 한 생활 권역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화산이씨 족보가 1子 계열(초보~5수보)·2子 계열(垕의 별도 족보)로 각기 분리되어 보존, 전승되었던 점, 2) 6修譜(1987년)에 이르러서야 '全'字를 붙여 비로소 大同譜의 형태로 합쳐져 간행된 점, 3)幹, 龍進, 元美 등과 같은 몇몇 인물의 생몰년, 관력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비정이 가해졌다.

그간 이용상 1子 계열, 2子 계열의 혈맥, 관력, 생몰연대, 분묘 및 묘역 역시 기왕의 연구에서 전혀 고찰되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족보 기록의 대조와 현지답사를 거쳐 분묘의 분포 및 묘역을 구명한 바, 2子 계열 안동파의 경우 봉화읍, 물야면, 춘양면,

111) 鳳城은 봉화의 別號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지리2, 경상도, 안동부, 봉화현). 봉성은 고구려의 고사마현 인데, 신라 파사왕 때 신라 영토가 되고, 경덕왕 16년에 옥마(玉馬)로 고쳐서 奈靈郡의 관할 하 縣으로 만들었다. 고려초에 縣의 이름을 奉化로 고쳤다. 현종 9년에 안동부에 소속되고 공양왕 2년에 감무를 두었다. (『봉화군사』, 2002, pp 12~13).

봉성면 등에 걸쳐 집단 묘역의 기록, 실존 등을 확인했고, 또 다른 2子 계열인 밀양파의 경우 族葬의 기록과 함께, 밀양시 무연리, 청운, 운정에 이르는 거대한 'V'자 묘역 역시 육안으로 파악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은, 2자 계열의 기록, 특히 유안의 「유사」, 후의 「개단선영기」와 「족보서」 등에 대한 본격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봉화의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봉화읍, 물야면, 춘양면, 봉성면 등에 걸쳐 화산이씨 2자 계열(안동파) 동선의 始終을 확인했다. 이로써 봉화는 8백년에 육박하는 '大越(Vietnam) 망명 왕조의 터전'이라 칭할 수 있다.

검토 결과, 화산이씨 족보는 두 갈래로서, 塁(李龍祥의 17세손. 2子 계열)가 작성한 족보서(1707년)는 1子 계열 枰이 작성한 초보서(1706년)보다 표기상 1년 늦지만, 실제로 가장 오랜 기록임이 비정된다. 또 塁의 족보서는 李龍祥에 대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주목받아 마땅하다. 이로써 초보서(1706)~중수보(1777)의 사이에서 大越의 정보를 바탕으로 '李龍祥(Lý Long Tường') 移居 설화'가 단계별 창작되었다는 일본 학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塁의 기록을 간과한 채 주로 1子 계열의 족보에만 천착한 나머지 빚어진 심각한 착간으로 밝혀졌다.

본문은 무엇보다, 1)李龍祥에만 초점이 두어진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혈맥의 연속성을 시간과 공간을 추적하며 파악했다는 점, 2)한·베 관계의 항구적 밀월을 진작시킬 의미 있는 역사적 상관관계를 구명하고 마련했다는 점, 3)역사적 뿌리와 근거를 토대로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國利民福의 사업을 펼칠 확고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 등에서 사변적 공리공론의 폐해에서 멀리 있으며, 이로써 뚜렷한 의의가 있다. 필자는, 이상에서 논구한 제반 내용이

향후 심화될 화산이씨 연구에의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大越史記全書』,『安南志略』,『欽定越史通鑑綱目』,『大越史略』,『宋史』,『宋會要輯稿』,『大漢和辭典』,『夢溪筆談』,『文獻通考』,『五洲衍文長箋散稿』,『新增東國輿地勝覽』,『대동지지』,『대동여지도』,『高麗史』,『朝鮮王朝實錄』,『密陽府 先生案』

李承哉 編,『花山李氏 世譜』(권1~5), 蓉南石版所,1921
李福永 외 4인,『花山李氏 族譜』全, 회상사, 1987
李相協,『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金永鍵,「安南 花山君 李龍祥の事蹟」,『印度支那と日本との 關係』, 富山房, 1943
金永鍵, 杉本直治郎,『印度支那に於ける邦人發展の研究』, 富山房, 昭和17(1942)
金永鍵,『黎明期의 朝鮮』, 정음사, 1948, p49.
강무학, 김용국, 김영문,『皇叔 李龍祥』(1966, 金문화사)
조성삼,『皇叔 李龍祥』(대한민족문화공사, 1966)
李相協,『花山李氏 족보』, 회상사, 2004
이덕일,『우리 역사의 수수께끼』3, (2004, 김영사)
박기현,『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2007, 역사의 아침)
片倉穰,『朝鮮とベトナム 日本とアジア』4章, 福村出版, 2008
박순교,『花山君 李龍祥』, 圖書出版 생각나눔(기획실크), 2012. 5
배양수,「뿌리를 찾는 사람들」, 서남포럼, 2012
Do Phung Thuy,『초국가적 다문화주의의 가능성 모색을 위한 월남 왕자 Lý Long Tường'연구』, 계명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金永鍵,「安南 花山君 李龍祥の事蹟」,『史學』Vol. 20, No2, 1941.11. 三田史學會, pp.85(271)~92(278)
강은해,「한국 귀화 베트남 왕자의 역사와 전설」,『동북아 문화연구』26, 2011
박순교,「花山君 '李龍祥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Ⅰ)」,『택민국학연구논

총』15, 2015.
박순교, 「Vietnam(大越) 皇子 '李龍祥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2)－'고려 移居 창작설'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40, 2017)
박순교, 「선조 흔적 찾아 봉화에 온 베트남 대사」, 『봉화일보』 특집기사, 2018. 1. 8.
윤대영, 「金永鍵의 베트남 연구 動因과 그 성격」, 『동남아시아연구』19권 3호, 2009, 57~100
李鎭榮, 「族譜と歷史認識, ベトナムと韓國」, 『ベトナムの社會と文化』2號, 2000
조흥국, 「12~14세기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 이주에 대한 재고찰」, 『石堂論叢』 55, 2013.
崔常壽, 「13世紀傾 安南王子의 高麗歸化」,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韓越協會, 開明文化社, 1966
허인욱, 「高宗代 '花山李氏' 李龍祥의 高麗 정착 관련 기록 검토」, 『백산학보』 100, 2014.

(투고일: 2018. 1. 31. 심사완료일: 2018. 3. 15. 게재확정일: 2018. 3. 21.)

박순교
소속: 육군 삼사관학교 강의교수
주소: 38650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전자우편: tyuio@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Vietnam(大越) Emperor's son, Lý Long Tường'(3)
– Focusing on Traceability and Trends of 'Whasan Lee clan(花山李氏)' –

Park, soon-kyo

I analyzed in depth the genealogy of 'Whasan Lee Clan(花山李氏)', which had never been studied befo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act that genealogical records of the descendants of the first son and the second son were preserved and transferred separately. 2) The fact that they joined together in the sixth genealogy(1987) for the first time. 3) The fact that some people had problems in their birth year, official rank etc. Accordingly, I added specific details on the issue.

The genealogy preface(1707)written by 塁(李龍祥's 17th generation) is one year later than the first genealogy preface written by 枰 (1706), but 塁's genealogy preface must be the oldest actual record. The Japanese scholar's claim that Li Long Tường's relocation story of had been created was turned out as purely illusory and misunderstood theory, based on only the first son genealogy.

In the case of the first son(幹), the second son(一淸)'s descendants, the office, the birth and death ages, the graves and the cemetery have not been considered at all. I followed the movement of the second son's family, I searched for the location of the activity area, the tombs of Bonghwa(奉花), and the cemetery position of Mt. 'Whasan Lee Clan(花山李氏)' in Milyang. After the genealogical records through out comparing and field trips's conduction, I listed the distribution and the grave site of the tomb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so, this research paper will become a rock of future base research.

Key Word : Lý Long Tường, Whasankun, Vietnam, Hochimin, Whasan Lee clan(花山李氏)